

지역 곳곳 맞춤형 문화배달 '탄력'

전북자치도,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사업 선정... 국비 4억4000만원 확보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지역문화진흥원에서 추진한 '2024 문화가 있는 날 -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2024 문화가 있는 날 -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또는 주간인 '문화가 있는 날'에 문화환경 취약지역 등에 대한 우선 지원을 통해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신규로 추진된 문체부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광역단위 공모로 광역지

자체 9곳이 신청했으며, 지난 22일 발표(PT) 심사를 통해 8곳이 최종 선정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공모에 '예술, 골골솨솨(한군데도 빼놓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곳은 모조리)'이라는 사업으로 신청했으며, 지역의 예술인들이 지역 한 군데도 빼놓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곳은 모조리 찾아가 예술, 문화가 낯선 도민들에게 지역, 대상 맞춤형 문화배달을 한다는 의미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과 협업으로 추진한다.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다중밀집지역 거점형

무대 프로그램 운영(시 단위) △문화취약지역(농산어촌) 및 교통약자들의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군 단위) △평일 공연관람이 힘든 근로자, 특수노동계층, 병원등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도내 지방공공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남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도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문화예술 시책을 발굴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지난 27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성남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조직혁신 추진

경영평가 등급 개선 위해 2023년 성과관리체계 전면 개편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경영평가 등급 개선을 위해 2023년 성과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성과관리체계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단계별로 운영했다. 이에 체계 개편을 위해 △부서·개인 업무분석 △성과관리 이해교육 △성과지표 전문가 컨설팅 △성과평가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내규 제정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직원 평가를 실행했다.

특히, 직원 소통과 이해, 그리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2회 성과관리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에게 만족도 4.4점이

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기에 지난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영평가 TF를 구성해 내·외부 소통을 강화했다.

TF 구성은 기관운영, 사업운영 2가지 파트로 각 부서의 주요 업무 담당자와 팀장급 20명이 참여했다.

TF에서는 △경영평가 결과 대책회의 △경영평가 대응 직원설명회 △지표 개선 회의 등 경영평가를 전달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내·외부 소통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도민을 위한 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경영평가 등급 개선을 위해 2023년 성과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사진은 회의 모습)

/장은성 기자

지역예술가 창작 지원 확대 '한뫼'

전주문화재단-성남문화재단-부산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지난 27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성남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예술가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성남, 부산, 전주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 내용으로는 △지역예술가 창작지원 확대 △다양한 지역과의 상호 교류를 위한 '2024 지역예술가 교류전-성남&부산&전주' 개최 △참여자 작가 간의 온라인 네트워킹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남문화재단의 서정림 대표이사, 박동기 예술본부장, 부산문화재단 이미연 대표이사, 허장수 문화공간팀장,

전주문화재단 백옥선 대표이사, 김정경 문예진흥팀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오는 11월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시각예술가 9명(지역별 3명)이 참여하는 '2024년 지역예술가 교류전-성남&부산&전주'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전주 작가들의 작품을 타 지역에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우리 지역 작가들이 대도시 지역에서 작품발표 기회와 작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창작역량이 향상되고,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오정환 팀원, 문체부 장관상 수상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오정환 팀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3년간 통합 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용률 2023년 3위, 2022년 1위 등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았다.

오정환 팀원은 "사업홍보, 찾아가는 문화장터, 복지시설 투어 서비스 등 문화누리카드의 이용 촉진에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세대·지역·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가족재단, 호남권역 여성정책연구기관과 협약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정정희)은 28일 호남권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광주여성가족재단에 모인 4개 기관대표와 관계자들은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개발, 교육 등 공동 추진 △여성·가족정책 세미나 및 학술대회 공동 개최 △협력사업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공유·활용 △인적 교류 및 지원 활성화 △그의 기관의 우수 증진 및 공동 발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호남권역 여성정책네트워크는 지역중심의 선도적 성평등 정책 모델을 개발·공유하고, 정부정책을 견인할 수 있도록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상향식(Bottom-up) 정책 개발 방식으로 지역중심형 여성·가족 정책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정희 원장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정책 개발로 지역 여성들의 삶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호남권역 여성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중심의 새로운 여성·가족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장수문화원, 제34차 정기총회 개최

장수문화원(원장 한병태)은 지난 27일 장수한누리 전당 소공연장에서 최훈식 장수 군수와 박용근 도의원, 김광훈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33차 회의록을 승인하고 202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장수문화원은 1994년 설립 인가된 이래 30년간 장수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며, 현재 장수 깃발놀이 복원전승, 장수문화 및 향토 문화연구 발간, 기적의 오케스트라,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 13개의 다채로운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병태 장수문화원장은 최근 제16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장으로 되었고, 한국문



화원연합회 이사로도 선출됐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문화원장님의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며 "이는 장수문화원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힘써온 결과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병태 문화원장은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행복의 근원인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앞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수=관효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